

# 익숙한 길 위, 시간이 축적된 낯선 풍경을 마주하다

쿤 반 덴 브룩 '지구의 피부'展...7월19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 도시 속 장면 해체해 선·면·색으로 남도 풍경 맞닿은 '땅의 표면' 포착

도시의 평범한 장면이 색과 선, 면으로 표현돼 마치 한 점의 추상화처럼 펼쳐진다. 도시 주변부의 장면을 회화로 표현해오고 있는 쿤 반 덴 브룩(Koen van den Broek)의 작업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7월19일까지 쿤 반 덴 브룩의 개인전 '지구의 피부'를 개최한다.

쿤 반 덴 브룩은 벨기에 출신 작가로, 평범한 도시 장면 속 낯선 분위기를 끌어내는 회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실제 풍경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사진처럼 보이는 장면을 다시 해체해 선과 면, 색 중심의 화면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무심코 지나치는 길과 구조물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찾아 관람객이 일상의 표면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도로와 보도의 균열, 차선, 그림자와 같은 '땅의 작은 흔적들'은 그의 작업 바탕이 된다.

작가의 시선은 남도의 해안과 갯벌, 콘크리트 제방과 아스팔

트 도로가 함께 있는 풍경과도 맞닿아 있다.

건축과 공학을 전공한 그는 회화로 전향한 이후 25년 넘게 도로, 보도, 교차로, 주차장 등 도시의 주변 공간을 꾸준히 탐구해왔다.

LA, 뉴욕, 라스베이거스, 사막의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본, 쿠바, 한국 등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착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멈춰 있는 듯한 분위기로 담겨 있다.

작가는 이러한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장면의 구도와 시점을 회화로 옮긴다.

화면 아래에서 잘려나간 차선, 비스듬히 가로 지르는 보도, 화면 밖으로 이어지는 그림자와 경계는 실제 장소를 보여주면서도 점차 단순한 선과 면, 색의 조합으로 바뀌며 추상적인 화면으로 이어진다.

그림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균열, 연석, 그림자, 새와 같은 요소들은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꿔 놓는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땅의 표면'은 웅장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닳아버린 아스팔트, 덧칠된 차선, 빗물 자국, 갈라진 틈 사이로 드러난 흙과



왼쪽부터 'The Edge 3', 'Orange Crack', 'Sunset'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같은 모습이다.

작가는 실제 도로 공사에 쓰이는 타르와 교통 표지용 페인트를 캔버스에 사용해, 인공적인 재료와 자연이 만나는 지점을 화면에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쌓인 시간과 흔적을 느끼게 한다.

이번 전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작까지의 회화와 드로잉 등 60점을 선보인다. 사진과 인터뷰 영상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도시의 장면들 ▲도로의 이미지들 ▲균열의 풍경 ▲이미지와 개입 ▲지구의 피부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연대기적 배열이 아닌 이미지와 물질의 흐름에 따라 작가의 시선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전시에는 기존 작업들뿐 아니라 작가가 전남도립미술관 설치 기간 동안 전시장에 머무르며 벽면에 직접 그린 드로잉이 포함돼 있어, 전시 공간 전체로 확장된 선과 리듬을 느껴볼 수

있다.

이치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작가가 주목해온 '땅의 표면'은 지금 이 시대에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인공적인 재료와 자연이 만나는 지점을 화면에 드러내는 그의 작업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쌓인 시간과 흔적을 되돌아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ACC 대나무정원서 미래 예술가들 첫 무대

내달 21일까지 광주예술중·고 학생 작품 순차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미래 예술가들의 첫 걸음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ACC는 오는 5월21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 I'을 개최한다.

ACC는 지역 예술가와의 상생을 위해 생애 단계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예비 예술가에게는 대나무정원을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고, 신진 작가와 원로 예술가에게는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전통과 현대를 잇다'를 주제로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학생들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참여 대상을 광주예술중학교까지 확대했다.

이번 전시는 ACC와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제작된 미술 전공 학생들의 창작 결과물 93점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먼저 23일까지 진행되는 '광주예술중학교 미술과' 전시는 '개성: 이름 없는 색들이 모여'를 주제로 열린다. 학생 각자의 감각을 바탕으로 한 회화 29점과 입체작품 11점이 전시된다.

이어 5월2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미술과' 전시가 펼쳐진다. '도약 한 걸음 너머로'를 주제로 회화(한국화·서양화), 조소, 디자인,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5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상욱 전담장은 "이번 전시는 예비 예술가라는 이름 아래 완성된 결과물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며 "지역의 젊은 예술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는 오는 9-11월 대나무정원에서 호남권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ACC-지역 예비예술가 발굴전 II'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ACC 대나무정원에서 진행 중인 광주예술중 미술과 학생들의 전시 전경

## 빛, 체험으로 확장... '빛을 찾다, 나를 보다'

내달 1-31일 우제길미술관 3개 클래스 무료 교육 프로그램

우제길미술관(사진)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우제길 작품을 기반으로 한 무료 미술 교육·체험프로그램 '빛을 찾다, 나를 보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즐거다' 사업(교육·체험 부문)에 선정돼 전 연령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프로그램 '빛을 찾다, 나를 보다'는 3개 클래스로 구성된다.

'한지 콜라주 클래스'는 오방색을 활용한 우제길의 한지 콜라주 작품을 모티브로, 참여자가 한지를 찢고 오려 캔버스에 붙이며 콜라주 기법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수업이다.

'나만의 아트백 만들기'는 우제길의 'Laver' 시리즈를 바탕으로 특수 캔버스 아트백에 색면과 겹침 구조를 표현해 개인 작품을 제작하는 체험이다. /최명진 기자



'같이와 가치'는 'Peak' 시리즈를 바탕으로 창작자와 기획자가 한 팀을 이뤄 작품을 완성하는 공동 창작 수업이다. 재료 교환과 소통 과정을 통해 매체나 활동과 협업의 의미를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날을 포함해 매주 수·토·일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텅 빈 냉장고, 다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